

반도체 슈퍼사이클 탄 수출...5월 수출 877억弗

반도체 수출 371.6억 달러...월 기준 역대치 20대 품목 중 12개 품목 ↑...車 수출 5.9% ↓

반도체 슈퍼사이클에 힘입어 지난 달 수출이 월 기준 역대 최대 실적을 갈아치웠다. 수출은 1년 전보다 53.2% 증가했고, 반도체 수출도 3개월 연속 300억 달러를 넘어서며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다.

이에 수출 증가세는 12개월째 이어지고 있으며 무역수지는 269억 5000만 달러 흑자를 달성했다. 정부는 반도체 단가, 중동전쟁에 따른 유가, 주요국 보호무역 조치 등을 변수로 꼽으면서도 연간 수출 1조 달러 달성이 불가능한 수치는 아니라고 봤다.

1일 산업통상부가 발표한 5월 수출입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수출은 1

년 전보다 53.2% 증가한 877억 5000만 달러였다.

이는 월 수출 기준 역대 최대 실적으로, 지난 3월 861억 3000만 달러, 4월 858억 9000만 달러에 이어 사상 처음으로 3개월 연속 800억 달러를 넘어섰다.

지난달 수입은 20.8% 증가한 608억 달러를 기록했고, 무역수지는 269억 5000만 달러 흑자였다.

조입입수를 고려한 일평균 수출도 60.7% 증가한 42억 8000만 달러를 기록했다. 일평균 수출이 40억 달러를 넘어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우리나라 수출은 정부 출범 이후 12개월 연속 플러스 흐름을 이어가

고 있다. 20대 주력 수출품목 중 12개 품목 수출이 증가했다.

김정관 산업부 장관은 "5월 수출이 플러스를 기록하면서 정부 출범 이후 12개월 연속으로 수출 플러스를 이어가고 있으며, 1~5월 무역수지가 기준 연간 무역수지 흑자 최대 실적을 경신했다"고 평가했다.

최대 수출 품목인 반도체는 지난달 169.4% 증가한 371억 6000만 달러의 수출액을 올렸다. 월 기준 역대 최대 실적을 경신했고 3개월 연속 300억 달러 이상을 기록했다.

중동 전쟁이 지속 중이지만, 미국 빅테크 기업의 설비투자가 늘면서 메모리 고정가격 상승세가 이어진 영향이다.

메모리반도체는 321억 달러로 255% 증가했고, 시스템반도체는 45억 달러로 6% 늘었다. D램 수출은 186억 달러로 369.8% 증가했고, 낸

드는 17억 달러로 206.8% 늘었다.

DDR5 16기가비트(Gb) 고정가격은 지난해 5월 4.80 달러에서 지난달 37.50 달러로 682.1% 올랐다. 낸드 128Gb 가격도 같은 기간 2.92 달러에서 26.51 달러로 806.9% 상승했다.

컴퓨터 수출은 인공지능(AI) 서버용 솔리드스테이트드라이브(SSD) 수요 증가로 290.7% 증가한 41억 8000만 달러를 기록했다. 4개월 연속 세 자릿수 증가율이다.

무선통신기 기 수출은 신제품 판매 호조에 따른 국내 생산 증가 등으로 12.6% 증가한 14억 6000만 달러였다. 디스플레이 수출은 9.4% 증가한 14억 7000만 달러로 집계됐다.

2위 수출 품목인 자동차 수출은 5.9% 감소한 58억 3000만 달러를 기록했다.

조입입수 감소, 국내 화재로 인한

자동차 부품 일부 공급 애로, 중동전쟁에 따른 물류 차질, 미국 관세 등에 따른 현지생산 확대 영향이다.

품목별로는 내연기관차 수출이 34억 4000만 달러로 14.4% 감소했다. 반면 순수전기차 수출은 8억 4000만 달러로 16.0% 증가했고, 하이브리드차 수출은 15억 6000만 달러로 6.8% 늘었다.

신차 수출은 52억 8000만 달러로 3.5% 줄었고, 중고차 수출은 5억 5000만 달러로 23.8% 감소했다.

선박 수출은 액화천연가스(LNG)선 등 인도 증가에 따라 수출단가와 대수가 모두 늘면서 16.7% 증가한 26억 1000만 달러를 기록했다.

비철금속 수출은 AI 데이터센터 확대로 동·알루미늄 등 수요가 증가하면서 41.5% 증가한 16억 7000만 달러였다.

/뉴시스

광주은행, 연 3.41% 비대면 예금 특판...1천억 한정

광주은행이 비대면 전용 정기예금 상품인 '디지털예금' 가입 고객을 대상으로 최고 연 3.41% 금리를 제공하는 특판 이벤트를 실시한다.

1일 광주은행에 따르면 이번 특판은 30일까지 총 1000억원 한도로 진행하며 한도 소진 시 조기 종료한다.

대상은 신규 가입을 포함해 직전 1개월 이내 광주은행 정기예금을 보유하지 않은 개인 고객이다.

12개월 이상, 1000만원 이상 가입 후 만기 해지할 경우 최고 연 3.41%(세전) 금리를 적용한다.

기본금리 연 3.10%에 마케팅 동영 우대금리 0.10%포인트(p), 이벤트우대금리 0.21%p를 더한 수준이다. 모바일 앱 '광주와뱅크'와 모바일뱅킹을 통해 가입할 수 있다.

문상용 광주은행 신성장 사업부장은 "앞으로도 고객 체감형 금융 서비스와 다양한 혜택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권형안 기자

여수광양항만공, AI 활용 크루즈 감염병 예방 캠페인 영상 공개

여수광양항만공사(이하 공사)는 여수항 크루즈 입항 증가와 크루즈 관광 활성화에 맞춰 생생형 AI를 활용한 감염병 예방 캠페인 영상을 제작해 공식 SNS 채널(유튜브·인스타그램)에 공개했다고 1일 밝혔다.

이번 영상은 최근 해외 크루즈선에서 보고된 한타바이러스 감염 사례와 관련해 크루즈 여행객과 국민들이 감염병 예방수칙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제작됐다. 주요 내용은 출국 전 감염병 정보 확인, 야생동물 접촉 주의, 의심 증상 발생 시 신고 및 상담

공사는 이번 캠페인 영상을 통해 크루즈 관광객에게 필요한 안전 정보를 신속히 제공하고, 항만 이용자의 감염병 예방 인식을 높일 계획이다.

/광양=조순익 기자



한전KPS, 에너지절약 캠페인 한전KPS가 에너지 위기 극복을 위해 광주송정역 이용객을 대상으로 대국민 에너지 절약 캠페인을 벌였다. 한전KPS는 지난달 29일 광주송정역에서 에너지 위기 극복을 위한 대국민 에너지절약 캠페인을 실시했다고 1일 밝혔다. 캠페인과 함께 자체 에너지 절감도 추진하고 있다. 이를 위해 '2026년 에너지절약 추진계획'을 수립했다.

한전KPS가 에너지 위기 극복을 위해 광주송정역 이용객을 대상으로 대국민 에너지 절약 캠페인을 벌였다. 한전KPS는 지난달 29일 광주송정역에서 에너지 위기 극복을 위한 대국민 에너지절약 캠페인을 실시했다고 1일 밝혔다. 캠페인과 함께 자체 에너지 절감도 추진하고 있다. 이를 위해 '2026년 에너지절약 추진계획'을 수립했다.

/뉴시스

'중동사태 여파' 전남 서남권 기업 이중고...“매출·수익 ↓”

목포상공회의소 “유류세 인하와 물류비 지원 등 건의”

중동사태 장기화로 전남 서남권 기업들이 매출 감소와 수익 악화 등이 중고를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목포상공회의소는 지난 3월부터 4차례에 걸쳐 서남권 기업을 대상으로 중동사태로 인한 고유가·고환율 등 대외 환경변화가 지역 기업들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했다.

1~2차 조사에서는 에너지와 원자재 비용 증가로 기업들의 매출이 20% 이상 감소한 사례가 다수 확인됐다.

이어 중동사태로 직접적인 피해 입은 운수업체, 제조업체, 조선업체 등을 대상으로 실시한 3~4차 조사에서는 업종별로 피해가 뚜렷했다. 운수업체는 유류비 상승에 따른 매출 감소가 확인됐으며, 원자재 수급 문제로 인한 조선업 생산 차질 우려 등이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

목포상공회의소는 이번 조사를 바탕으로 유류세 인하와 물류비 지원

등 실질적인 정책 지원이 시급하다는 입장을 해양수산부와 산업통상부, 중소벤처기업부에 건의했다.

또 전남 서남권 기업들의 피해 상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추가 건의를 대한상공회의소 애로메소크를 통해 이어갈 계획이다.

정택목 목포상공회의소 회장은 “중동사태가 유가, 환율, 해상물류 등 기업 경영 전반에 큰 영향을 주고 있다”면서 “정부와 지자체가 빠르고 실효성 있는 지원 대책을 마련해 지역 기업 피해를 최소화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 호 기자

광주경총 가전업체 고용지원사업 참여 독려

광주경영자총협회(이하 광주경총)는 고용노동부, 광주광역시와 함께 추진 중인 융·복합 가전산업 고용안착 활성화 지원사업의 참여를 적극 독려하고 있다고 1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대우위니아 사태 여파 극복과 지역 가전·부리기업의 구인난 해소를 위해 마련됐으며, 지역주도형 일자리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된다. 현재 광주고용복지플러스센터, 광주광산고용센터와 협력해 활발한 구인·구직 매칭을 지원하고 있다.

광주경총은 지역 일자리 수요데이 행사와 연계해 융·복합 가전산업 및 연관 기업 취업 희망자가 현장 면접에 참여할 경우 5만 원의 면접비를 지원한다.

또 지난 4월 말 통합광고 이후 채용된 신규 근로자에게는 1개월 만기 시 50만 원의 취업성공 축하금을 지급한다.

이와 함께 기업과 근로자의 고용 안정을 위한 맞춤형 지원도 병행된다.

입사 후 6개월 고용을 유지할 경우 기업에는 신규 채용 인건비로 매출 50만 원씩 최대 6개월간 총 300만 원이 지원되며, 근로자 본인에게는 100만 원의 근속 장려금이 일시 지급된다.

또 현장 적응을 돕기 위해 직무 지도를 맡은 재직자에게도 6개월 후 60만 원의 고용 안착 성공 인센티브가 주어지며 노사가 함께 상생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

/김승준 기자

현대차, 이경규와 북중미 월드컵 응원...‘차박원정대’ 출격

첫 콘텐츠 공개...대표팀 훈련 모습부터 경기 직관까지



차박원정대의 원정대장 이경규가 아이오닉6 앞에서 대화하고 있다. /현대차 제공

현대자동차는 'FIFA 월드컵 2026 TM'을 맞아 방송인 이경규와 함께 하는 디지털 콘텐츠 '차박원정대 with 현대자동차(차박원정대)'를 공개할 예정이라고 1일 밝혔다.

차박원정대는 원정대장 이경규를 중심으로, 은퇴한 대전드 축구선수·유소년 축구선수를 비롯해 월드컵 기념 시승 이벤트에서 선발된 고객 등 총 11명으로 구성됐다.

현대차는 월드컵 공식 파트너로서 월드컵 캠페인 '미래는 지금 여기서부터(Next Starts Now)'의 일환으로 이번 콘텐츠를 기획했다.

차박원정대는 이날 오후 6시 첫 번째 콘텐츠를 공개한다. 이후 이경규 공식 유튜브 채널을 통해 총 5편의 콘텐츠가 순차적으로 공개될 예정이다. 현대차 공식 유튜브 채널에는 주요 장면을 담은 숏폼

영상이 게시된다.

첫 번째 콘텐츠는 원정대 출범 과정을 중심으로 전개되며, 현대차 월드컵 캠페인 '미래는 지금 여기서부터(Next Starts Now)'에 담긴 의미와 국가대표팀 선전에 대한 기대감 및 응원 메시지를 전달한다.

이어지는 콘텐츠는 원정대의 발대식부터 국가대표팀 경기 직관 모습까지 담아 전 세계인의 축제인 월드컵에 대한 기대감으로 들뜬 현장 분위기를 생생히 전한다.

특히 원정대가 현대차의 글로벌 브랜드 엠베서더인 손흥민 선수를 찾아오는 단독 인터뷰 콘텐츠도 공개할 예정이다.

현대차는 1999년부터 FIFA 월드컵 및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팀을 후원해왔다. 오는 12일부터 다음달 20일까지 열리는 북중미 월드컵 역시 공식 후원한다.

현대자동차 관계자는 “월드컵에 진심인 방송인 이경규 씨와 축구 레전드, 시승 고객들이 함께 모여 응원하는 모습을 통해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팀의 선전에 대한 전 국민의 기대와 염원을 전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권형안 기자

중소벤처기업 금융지원상 후보자 공모

15일~7월3일...불법 부당개입 예방 포상 확대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 광주전남중기청에 따르면, 오는 15일부터 7월3일까지 '제31회 중소기업 금융지원상' 포상 후보자를 공개 모집한다고 밝혔다.

금융지원상은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에 대한 원활한 금융지원을 통해 경제 활성화와 민생 안정에 앞장선 금융 유공자를 발굴·포상하는 것이다.

올해는 중동전쟁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소상공인의 현장 체감형 우수지원 사례를 적극 발굴하고, 불법 부당개입을 예방하는 데 공헌한 유공자 포상을 확대한다.

특히 부당개입 예방 분야 포상은 지난해 3~5점 수준에서 올해 5~7점 수준으로 늘었다.

정책자금 집행 과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다진 숨은 공로자들을 적극 격려한다는 취지다.

총 포상 규모는 정부포상과 장관 표창 등을 포함한 총 77점(잠정)이다. 훈·포장, 대통령표창, 국무총리표창 등 정부포상 12점은 행정안전부와 협의 거쳐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시상식은 12월로 예정됐다.

한성숙 중기부 장관은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도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금융애로 해소를 위해 현장에서 노력한 유공자를 적극 발굴할 계획”이라며 “금융지원상을 통해 상생금융과 현장 중심 정책금융 문화가 더욱 확산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자세한 사항은 중기부 또는 대한민국 상훈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권형안 기자

청년일자리스테이션 용봉 ‘썩! 알데이’

고용정책 안내부터 체험 프로그램·명사 특강까지



광주청년일자리스테이션 용봉은 5월 22일 지역 청년 대상으로 청년 고용정책을 ‘썩! 알데이’라는 의미의 청년고용정책 안내 행사 ‘썩! 알데이’를 운영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청년들이 다양한 고용정책을 보다 쉽고 친근하게 접할 수 있도록 마련됐으며 청년고용정책 안내 부스, 원데이클래스 체험 부스, 명사 특강 등으로 구성됐다.

이날 참여 청년들은 청년고용정책 안내 부스를 둘러 스탬프 투어에 참여하고 슈팅클스 만들기과 키캡 키링 만들기 등 원데이클래스 체험을 함께했다.

이후 tvN ‘벌거벗은 세계사’에 출연한 김봉중 교수의 명사 특강과 추천 이벤트 등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해 참여자들의 호응을 얻었다.

/권형안 기자

대한조선, 수에즈막스급 원유운반선 수주

2척 수주...총 2828억 규모

대한조선은 오세아니아 선사로부터 수에즈막스급 원유운반선 2척을 수주했다고 1일 밝혔다.

이번 계약 규모는 총 2828억원, 척당 1414억원으로 올해 대한조선이 수주한 선박 중 최고가다. 해당 선사는 지난해 대한조선과 첫 건조 계약을 체결한 신규 고객사다. 첫 배를 인도받기도 전에 지난해 9월(1척)과 11월(1척)을 시작

으로 올해 2월(2척), 3월(2척)에 이어 이번 5월에도 2척을 추가 발주했다.

대한조선은 이번에 계약한 선박을 2028년 11월부터 순차적으로 선주사에 인도 예정이다. 올해 15척의 수주 실적을 보이면서 2029년 말까지 건조 물량을 조기에 확보했다.

대한조선은 지난해 대한조선과 첫 건조 계약을 체결한 신규 고객사의 826억원(1척)을 기록, 재무 건전성도 입증했다.

/해남=김동주 기자